

# “교황님, 통곡의 땅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귀환 빌어주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 기아차 쏘울을 타고 궁정동 교황청대사관으로 향하며 을지로입구역 부근의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실종자 가족들, 진도 방문 요청 서신 오늘 전달

### 빠듯한 일정 사실상 어려워...파격 행보 '기대'

“교황님, 통곡의 땅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의 귀환을 빌어주시고, 끝없는 기다림으로 지쳐가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해주세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공식 방문했던 1984년, 그는 광주를 찾아 전두환 정권에 짓밟힌 시민들의 아픔을 닦아주는 미사를 열고 소록도를 찾아 고통받는 한센인에게 위로를 건넸다.

가장 낮고 소외된 곳을 먼저 찾았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처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팽목항을 찾

는 '기적'이 또다시 연출될 수 있을까.

14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배의철 간사에 따르면 실종자 가족들은 교황 프란치스코 한국 방문 기간 중 교황에게 팽목항을 직접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명기한 서신을 작성했다.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한국 방문 당시 이 땅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던 광주와 소록도를 찾았던 것처럼 2014년 현재 가장 큰 슬픔이 서려있는 팽목항을 찾아달라는 것이다.

실종자들의 뜻을 담은 서신은 영문으로 작성돼 15일 세월호 유족 및 생존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건네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구두로 재차 교황의 진도 방문 요청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유족들은 지난달 1일 영수정 추기경을 통해서 진도 방문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중순에 교황방문추진위원회를 통해 또다시 진도 방문을 요청한 바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목적이 대전에 열리는 '제 6회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인데다 30분 단위로 일정이 빠듯하게 짜인 만큼 사실상 교황의 진도 방문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항상 낮은 곳을 찾아다니던 교황인 만큼 자신의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격적이고 소탈한 행보를 보인 전례가 있어 교황의 진도 방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는 측면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날 팽목항에서 만난 한 단원고 학부모는 “잊혀져 가는 통곡의 땅 팽목항에 교황님께서 방문해주신다면 기적처럼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의 품속으로 달려올 것 같다”면서 “바쁜 일정이 줄었지만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슬픔이 서려있는 곳은 진도 팽목항인 만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감추지 못했다.

/진도=김영호기자 khh@kwangju.co.kr /박기을 수습기자 khh@kwangju.co.kr

## 광화문 시복식에 세월호 유족 600명 참석 유족들 “특별법 해결 계기 됐으면”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순교자 124위 시복식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 6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교 교황방한위원회 허영영 대변인은 14일 소공동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서 연 브리핑에서 “전날 세월호 유족 측에서 600명이 시복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이미 (시복식) 자리 배치가 끝났지만 신도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조금씩 좁혀서 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직후로 예정된 세월호 희생자 가족 10명과의 면담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허 대변인은 “다만 경호와 보안 관계상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은 일단 전날(15일) 밤에 광장에서 만나자고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는 지난 12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내뱉을 수 없다”면서 광화문광장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강제퇴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운데 고 남윤철 안산 단원고 교사의 아버지 남수현씨와 부인 송경옥 씨 등 4명은 이주노동자, 새터민 등 평민도 대표들과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환영하기도 했다.

공향에 내린 프란치스코 교황은 환영단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다 세월호 가족을 소개받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세월호 가족들은 교황 비행기가 착륙할 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교황에게 준비해 간 말들을 미처 하지는 못했다고 박운오 씨는 상황을 전했다. 교황 입국

과 비슷한 시각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교황이 방한해주시고 세월호 문제가 물론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교황 방한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와 대화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5일 대전 미사에서는 전국을 도보순례 중인 세월호 가족 3명이 지고 다니는 십자가를 교황이 직접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가족대책위는 전했다. 광화문 시복미사가 열리는 16일에도 일부 가족들이 교황을 만나고, 17일 폐막미사에서는 생존 학생과 부모들이 참석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쏘울’ 탄 교황...웃음꽃 ‘기아차’

‘포포모빌(교황의 차량)’의 영예는 이미 알려진 대로 국산 소형 박스카인 ‘쏘울’에 돌아갔다.

14일 오전 역대 교황 가운데 세 번째로 내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영 의식이 마무리된 뒤 진척성 쏘울에 몸을 싣고 속속인 서울 궁정동 주한 교황청대사관으로 향했다. 이날 교황을 태운 차량은 배기량 1600cc급인 기아자동차 ‘쏘울 1.6’으로 색상은 ‘뉴포트 블루’다.

지난해 취임 이후 두 번의 외국 방문에서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대중과 가까이하기 위해 방한차를 타지 않은 교황은 이번 방한을 앞두고도 가장 작은 급의 한

국차를 타고 싶다는 뜻을 교황방한준비위원회에 전했다. 쏘울은 이런 뜻이 반영돼 교황의 차량으로 낙점됐다.

국내의 방송, 신문, 통신들의 열띤 취재 열기 속에 이날 교황의 차량인 쏘울이 덩달아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제작사인 기아 자동차도 쾌재를 부르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교황이 쏘울에 탑승하는 모습이 방송으로 나간 이후에도 “쏘울이 어떻게 교황차량으로 선정됐는지는 알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는 “교황 차량으로 선정돼 부듯하다”는 소감을 밝히며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임동률기자 exian@

## 첫 만남은 ‘보통사람들’ 장애인·이주노동자 등 32명 환영단에 포함

14일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장 먼저 만난 이는 사회에서 소외받고 상처받은 ‘보통 사람들’이었다.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맞이할 환영단에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단 외에 평신도 대표 32명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세월호 유가족 가운데 신자 4명과 함께 지난 2009년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 때 입었던 제의를 만들었던 정진숙(62)씨도 장애인 대표로 공향에 나와 교황을 환영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에 소속된 봉제협동조합 솔샘일터에서 일하는

정씨는 오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주례할 때 입을 장백의를 제작하기도 했다.

지난 2001년과 2012년 각각 한국에 입국한 새터민 한성룡(44)씨와 김정현(58·가명)씨 등 새터민 2명, 필리핀 이주노동자 하이메 세라노씨와 볼리비아 출신 아녜스 팔로메게 로마넬 씨 등 이주노동자 2명도 환영단에 있었다.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옥스퍼드대에서 철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양 수산나(78·수산나 메리 영) 여사와 성골출반 외방선교회 소속인 뉴질랜드 출신 안광훈(73·브레넌 로버트 존) 신부

도 공향에 나왔다.

양 수산나 여사는 한 달이 넘는 긴 항해 끝에 1959년 12월 우리나라에 입국해 1962년 가톨릭푸름터(옛 가톨릭여자기술원)를 세우고 불우한 여성들에게 양재와 미용기술을 가르쳤다. 그는 1973년 여성 사도직 협조자 교육을 위해 프랑스 루르드로 간 뒤에도 매년 한국을 오가며 대구와 인연을 이어가다 2004년 은퇴한 뒤 한국에 정착해 2011년 대구 명예시민이 됐다.

안 신부는 1966년 입국해 강원도 내성당에서 사목하면서 정선 신협, 성프란치스코 병원 등을 세워 농민과 광부

들의 자활을 도운 데 이어 1980년대부터 빈민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 강북구 일대에 전셋집을 얻어 살며 달동네 주민들과 철거 반대 운동, 실직자 대책 마련, 재활센터 설립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이밖에 다산 정약용의 형이자 성정하상 바오로의 아버지인 정약종의 방계 4대손인 정규혁(88)씨, 오는 16일 복자 품에 오르는 권상문·전례 남매의 6대손인 권혁훈(68)씨 등 시복대상자 후손 2명도 공향에서 교황을 맞았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부작용: 수술 초기 이안 빛반점, 노안시력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기준 제081110-증-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 맑은피부과·성형외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세션 30여종) | 항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 볼세라, 써미지, 웨너트 복합치료  
② 에드용 레이저: 스무스빔, 아이솔, 브이빔, 프락셀  
③ 체온 조절 레이저: 쉐닝맥스, 디오오우즈메오  
④ 피부 미백: 쉐닝맥스, 쉐닝맥스, 쉐닝맥스  
⑤ 주름·출혈: 프락셀, 울트라맥스, 프락셀, 프락셀  
⑥ 안·내: 네오모노,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윤임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